

12/3/17

설교 제목: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인간적인 측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6 장 15-23

- (롬 6: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관주** 롬 6:1, 고후 7:1, 딤후 2:12
- (롬 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 (롬 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 (롬 6: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 (롬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 (롬 6: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절관주** 창 6:5
- (롬 6: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 (롬 6: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1-14 절까지 신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데 이어 이번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질 수 없는 이유가 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롬 6: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2 절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롬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롬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6 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신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시작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17 세기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인 Thomas Goodwin 의 'two Giants' 비유에 따르면 아담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매달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함께 사망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조적으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매달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칭의와 영생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영생까지 얻은 사람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자"하며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롬 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 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롬 6: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 곧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준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게 힘들었습니다.

마땅한 일거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국가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부자를 찾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종이 된 사람의 의식주를 책임져주고 대신 종이 된 사람은 평생을 아니 자손들까지 부자의 종이 되어 그가 시키는대로 행하며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구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운명까지를 좌지우지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주인과 종의 예를 들어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아주 제한적인 것만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몇가지 예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성별은 우리가 선택해서 취한 것입니까?

부모는 우리가 택했습니까?

죽음은 어떻고요?

죽기 싫다고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몇 살까지 살다가 죽겠노라고 우리가 결정합니까?

어찌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 의지'(Free Will)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제한된 자유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고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를 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을 따르겠느냐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악된 본성까지 전가를 받았습시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롬 3: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롬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롬 3: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롬 3: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3: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롬 3: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롬 3: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롬 3: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허리 벨트 고리에 걸려 있는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죄에게 자신을 내어 주어 죄의 종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타락'(Total depravity of human nature)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옛 주인인 죄에 대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성도가 죄에 순종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롬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롬 6: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주인이 악하면 종들에게도 악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주인이 의로우면 종들에게도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주인인 마귀가 시키는대로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눈으로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고, 손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발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을 가고, 귀로 하나님이 듣지 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체를 불의와 불법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롬 6: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롬 6: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의 종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 즉 육신이 사망한 후 부활합니다.

그리고 백보좌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거룩한 삶의 열매인 영생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 사는 거룩한 삶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내세는 “이 세상에서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지옥,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주인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유인하여 점점 악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결국은 영원히 죽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면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고 결국 영원히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진시왕이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진시왕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 삶의 종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종말은 사망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의의 종으로 살면 그 종말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내세가 결정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당장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한아름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free gift 입니다.